

## 다시 한해를 보내면서

문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한해가 저물고 희망과 기약에 찬 새해의 아침이 밝아 옵니다.

금년에는 소름끼치는 대형사고들로 얼룩지기는 했습시다마는 온 겨레가 조국의 선진화를 표방하여 줄다름친 결과로 일찌기 없었던 튼튼한 안정기조가 다져지는 속에 새로운 경제도약의 기틀이 마련되었고 모든 분야에서 화합과 창조와 자율의 꾸준한 추구로서 축적된 국민의 넘치는 활력은 새해 84년을 향해 또 다시 크나큰 전망을 펼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토자연의 대표적 경관지역인 국립공원을 보호하고 보다 합리적이용을 도모하려는 국민운동의 선도역할을 맡고 있는 국립공원협회도 눈에 떨만한 실적을 내세울 수는 없지만 공원운동의 범국민적확산이라는 본래의 소명을 다해 보겠다는 꾸준한 의지와 현실여건의 상충속에서나마 더러가지 어려움을 견뎌 낸 그나마 보람있는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두말 할 것도 없이 우리 협회의 소임은 모든 자연공원과 관광지등 수려한 경관지역의 올바른 보호와 진정한 이용을 통한 착실한 발전을 도모하고 그것이 곧 국민건강과 정신순화로 이어져서 민족단합과 경제발전으로 확대 재생산되는 밑거름이 되도록 하고 후손들에게 금수강산을 물려 주는 민족운동의 전위역할로 요약 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가 발전하고 그 구조가 다기화 할 수록 환경과피의 범위와 빈도가 커지는 것은 필연이기 때문에 위락공간으로서의 자연에 대한 욕구는 증대하게 마련입니다.

더구나 과밀인구에 시달리는 우리로서는 자연을 보호·선용하는 운동을 꾸준히 확산하여 자연훼손이 물고 울 막대한 손실을 막아야 하는 절실한 과제가 우리협회의 사명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뜻을 같이 하는 회원조직의 저변확대가 시급하며 협회재정의 자립이 절실합니다.

지금까지 뚜렷한 제도의 뒷받침 없이 미온적으로 베풀어져 온 당국의 지원이나 특정인사의 출연으로 명맥을 이어 온 전철을 되풀이 할 것이 아니라 확실한 이념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위에 정관에 따른 본연의 사업이 꺼리낌 없이 추진될 수 있는 새 전통의 수립이 절실한 과제입니다.

그러기 위하여는 정책당국의 획기적이고 과감한 시책과 많은 동참자들의 열의에 찬 참여가 기대됩니다.

더구나 86계임, 88올림픽의 준비작업이 본 궤도에 오를 84년 새해를 맞는 시점에서 모두 옷깃을 여미는 새 다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한해동안 중책을 맡고서도 무위 무책으로 넘긴 허물을 자성하면서 우리 민족이 지향하는 바 「푸른 산 맑은 물」의 복지사회건설에 국립공원협회가 보다 뚜렷한 좌표를 차지하는 소망스러운 새해가 되도록 분발 할 것을 다짐하면서 삼가 송구영신의 인사를 드립니다.

1983. 12

국립공원협회장 이 호